

지자체 금고선정 개선안에... 지방銀 “조삼모사” 우려

금고지기 향한 은행간 출혈경쟁 격화
출연금 배점 줄이고 금리 배점 높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기를 향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 출혈경쟁이 심해지자 정부가 지방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안을 내놨지만 개선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은 배점이 줄어든 ‘출연금(협력사업비)’ 싸움이, 배점이 확대된 ‘금리’ 싸움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결국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이 유리할 것이라 해석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은행이 요구한 7~8개의 금고평가항목을 일부 받아들여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배점을 개선·발표했다. 변경된 평가기준은 세부내용을 포함해 총 6개로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 안전성(25) ▲자치단체 대

출 및 예금금리(18)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7) ▲금고업무 관리능력(22) ▲지역사회 기여실적(6) ▲기타사항(11)이다.

우선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기여실적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항목은 4점에서 2점으로 축소됐다. 업계 안팎에서 지자체에 기부금 방식으로 사용되는 출연금에 대한 과당 경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금고 관리은행을 선정할 때 협력사업비가 아니라 이자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출연금에 대한 배점을 축소하고, 상한선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은행은 출연금에서 금리로 항목만 달라졌을 뿐 과당경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대출 예금금리 항목배점이 15점에서 18점으로 늘어나면서 지방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는 대형 시중은행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대구시 금고선정 당시 농협(1.15%)은 대구은행(1.00%)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한 바 있다.

또 지방은행은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항목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지역 채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배점이 낮아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선안을 보면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중 관내 무인점포, ATM 등 설치 항목은 5점에서 7점으로 올랐지만 지방세입금수납 항목은 1점, 납부 편의는 2점 축소

됐다.

박내규 지방은행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앞서 지방은행 노사가 요구한 사항을 상당부분 개선한 것은 맞다”면서도 “출연금보다 배점이 큰 금리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 금고를 선정할 때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나 주민의 이용 편의성 등이 우선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좋고 나쁜지는 금고지정 결과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자체 일반회계 금고 기준으로 NH농협은행이 67.9%를 점유하고 있고 시중은행 17.7%, 지방은행 14.4% 등이다. 올해 금고지정이 예정된 지자체는 대구, 울산, 충남, 경북, 경남 등 5개 광역단체와 44개 기초단체가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oul.co.kr



포스코, 포항시와 손잡고 환호공원 명소화 추진

창립기념일 맞아 기업시민 활동
해상 케이블카·조망 환경 조성



조성한 환호공원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철강재를 이용한 세계적 작가의 철강 조형물을 설치해 랜드마크로 조성된다.

포항시는 여객선터미널에서 환호공원까지 1.85km 구간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공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영일대 해수욕장과 포항제철소의 경관을 환호공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정우 회장은 “포항시민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속에 글로벌 철강사로 성장한 포스코는 창립 51주년을 맞이하여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포스코의 철강재를 이용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포스코와 포항시의 무한한 발전과 상생의 의미를 담아낼 것이며, 환호공원이 포항은 물론 전국의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운영방향을 심의했다. /금융위원회

휴대폰에 유심칩만 넣으면 인증서 없이 금융·통신서비스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앞으로 휴대폰에 유심(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나 앱 설치를 하지 않고도 은행 및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해외출장이 잦은 소비자는 해외여행 보증을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출국하면서 서 보증을 켜고(on) 귀국하면서 끌(off) 수 있게 된다. 이들 서비스는 이르면 이달 중 테스트를 거쳐 상용화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우선심사대상 혁신서비스 19건을 공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 임시해제) 도입으로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에는 혁신서비스 사업성을 시험해 볼 수 있다”며 “정부또한 혁신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보고 궁극적인 규제개혁을 검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지역특구 등 4대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분야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일정기간 혁신적 서비스를 규제 없이 시행하고 검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발표된 19건의 서비스는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신전문 금융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

2P 1건 등으로 배분됐다. 이들은 지난 1월 사전 신청으로 접수된 105개 서비스 중 실무검토와 혁신위원 우선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19개 서비스 중 은행분야에는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과제가 포함됐다. 이 서비스는 유심(USIM)칩 안에 은행 자체 인증 기술을 탑재해 복잡한 절차없이 은행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차량을 탑승한 채로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100만원 이하의 환전과 현금인출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중이다.

대출분야에선 핀테크기업 핀다의 대출비교 플랫폼이 선정됐다. 소비자가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한번에 비교 분석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 밖에도 여행자 보험 계약을 간소화하고 공항에서 간편하게 해외여행자 보험을 켜고 끌 수 있는 서비스도 포함됐다. 이 서비스는 보험을 연간단위로 가입해 출국하면서 보험을 켜고 귀국하면서 끄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들 서비스 테스트를 위해 그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요구가 지속됐던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의 ‘1사 전속주의’ 규제, 여전법의 신용카드 가맹점 규제, 보험업법의 보험판매 규제 등에 특례사항을 우선 반영키로 했다. /나유리 기자

현대車 실적, 그랜저·팰리세이드 ‘쌍끌이’

올 1분기 국내 완성차 성적표 공개
현대차·쌍용차 ‘봄바람’ 상승세
르노삼성·기아·한국지엠 ‘찬바람’

올해 1분기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는 봄바람을 타고 판매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노사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지엠은 판매 감소세를 기록했다.

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준대형세단 그랜저의 성장세에 힘입어 올 1분기 내수 판매 18만3957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16만9203대)와 비교해 8.7% 증가했다. 그랜저는 1~3월 2만8328대가 판매됐다.

여기에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도 1만8049대가 판매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그랜저와 쏘타페, 팰리세이드 등 주력 모델이 내

수 시장 실적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기아차는 같은 기간 판매 실적이 7.4% 줄어든 11만5465대에 그쳤다. 1분기 차종별로 보면 미니밴 카니발이 1만5708대로 가장 많이 팔렸다. 카니발은 12개월 연속 기아차 가운데 베스트셀링 카(승용차 기준)로 꼽혔다.

‘아빠차’인 중형 SUV 쏘렌토는 1만3400대 판매됐다. 내년 신형 쏘렌토의 출시를 앞두고 대기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판매량은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1분기 2만7350대를 판매하며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년 동월(2만3988대)과 비교해 14.0% 증가했다. 2003년 1분기(3만9084대) 이후 16년 만에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15년 만에 내수 판매 3위 자리에 오른 뒤 선전하고 있다.

특히 픽업트럭인 렉스턴 스포츠가 회사를 견인하고 있다. 렉스턴 스포츠는 최근 석 달간 1만1804대 팔려 나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8264대) 대비 42.8% 증가했다.

이 외에도 소형 SUV 티볼리 브랜드는 9391대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지엠은 1분기 1만6650대를 팔았다. 전년 동기(1만99920대)와 비교하면 16.4% 감소했다. 경차 스파크와 중형세단 말리부가 각각 7241대, 3373대 팔려 전체 실적을 떠받쳤다. 또 SUV 트랙스가 2973대로 선전했다.

목표로 잡았던 내수 판매 3위 탈환에는 실패했다. 다만 공격적인 판촉활동에 힘입어 지난달(6420대)엔 판매가 2018년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전년 동월보다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올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대형 SUV 트래버스와 중형 픽업트럭 콜로라도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르노삼성은 근소한 차이로 판매 순위를 뒤집지 못했다. 1분기 전년 동월(1만9555대)보다 14.9% 감소한 1만6637대를 팔았다. 르노삼성은 신차 부재에 따른 실적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중형 SUV QM6는 가솔린 모델의 인기로 힘입어 7996대 판매돼 지난해 1분기(6299대) 대비 26.9% 늘었다.

르노삼성은 액화석유가스(LPG) 모델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된 만큼 중형 세단 SM6, 준대형 세단 SM7 LPG 모델 판매 상승에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성운 기자



현대자동차 2019년형 그랜저.